

## + 어떤 영화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할수록 인간은 행복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인간 소외의 현상은 매년 새롭게, 그러나 익숙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곤 합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미안해요, 리키>는 36년생 켄 로치 감독이 전작 <나, 다니엘 블레이크> 당시 했던 은퇴선언을 반복하면서까지 해야만 했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69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관료제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비존엄적 실태를 고발하면서 감동과 목직한 울림을 주었다면, <미안해요, 리키>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협력으로 탄생한 '긱 이코노미(Gig economy)', 그리고 그 안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들의 척박하고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이번 72회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과 함께 경쟁 부문에 오르고, 24회 부산영화제에서 전석 매진된 화제작입니다.

## + 알고 보면 더 잘 보여요: 긱 워커(GIG Worker)

임시직 위주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 긱 이코노미 속에서 긱 워커(Gig worker)는 필요에 따라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형태로 단기 계약을 맺고 시간제로 일합니다. 하청과 다른 점은 전문성에 있습니다. 업무의 자율성과 독립성, 업무시간의 유연성이 보장된다는 달콤한 말 이면에는, 고용 안정이나 최저 수준의 처우, 보험, 안전과 휴식 등의 권리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오롯이 노동자 개인이 져야 합니다. 영화에 나온 택배 기사와 요양보호사 외에도 배달 대행기사나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긱 워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해보면 좋을 주제입니다.

발행 문화선교연구원

집필 및 디자인 문화선교연구원

다운로드 [www.cricum.org/1588](http://www.cricum.org/1588)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대신동, 하늬솔빌딩A) B1 필름포럼

문의 02-743-2535, [www.cricum.org](http://www.cricum.org)

“마스터피스!  
켄 로치 최고의 영화가  
탄생했다”

- Screen Daily -

“인간에 대한  
뜨거운 공감을 담은 드라마.  
강력한 클라이막스 씬으로  
치달으며 숨을 멎게 만든다!”

- The Hollywood Reporter -



FESTIVAL DE CANNES  
COMPETITION  
SÉLECTION OFFICIELLE 2019

REALISATION  
KEN LOACH  
Kris Hitchen  
Debbie Honeywood  
Rhys Stone  
Katie Proctor

SCÉNARIO  
PAUL LAVERTY



영화 <미안해요 리키> 무비톡가이드 vol.39

# “행복을 찾아서”

- 기술의 발전 이면에 외면된 진실을 마주하고 싶을 때 -
-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전하고 싶은데 막막하다면 -

문화선교연구원+필름포럼+서울국제사랑영화제

## + 영화 이해를 위한 TIP!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율조리는 리키의 말 뒤에는 배송 추적 기계를 대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 기계가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는지 결정하니까”(리키), “이 바코드 기계를 행복하게 하세요”(멜로니). 기술의 힘을 얻은 자본, 그리고 그에 편승하는 사람들은 더욱 냉혹하게 누군가의 고단한 삶을 흔들고, ‘블루칼라 생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시인’이란 별명을 가진 감독 켄 로치는 이들을 대변해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누군가들의 행복을 묻습니다.

무엇이 행복 대신 소외를 야기하고, 끝없는 빈곤으로 추락하게 할까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질주하는 리키를 멈춰 세우고, 가족 모두 행복하게 웃음 짓게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화 <미안해요, 리키>의 원제는 *Sorry, We missed you.* (미안해요, 우리가 당신을 놓쳤군요.)입니다. 영국에서 택배 수신인이 부재중일 때 남기는 쪽지에 적힌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적힌 쪽지는 영화에서 수차례 등장하는데, 수신인이 부재해서 택배를 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택배기사가 미안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약자의 위치에 놓여,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영화의 제목이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로 미안해야 할 일이 아니냐고 말이지요.

이천 년 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역시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모두가 놓쳐버린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켄 로치는 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소감에서 “우리는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문장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고 말해야 한다.”

## + 함께 볼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 1:27)

## + 영화 보고 나누기

1.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이나 인상 깊은 장면, 인물, 대사를 골라 A4 용지에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2. 리키는 가족의 행복이 집에서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

---

3. 리키(남편)와 애비(아내), 세브(아들)와 케이티(딸)은 한 가족이었지만, 각각 자신의 삶에서 바라는 것이 같기도, 다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각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랐는지 나눠봅시다.

---

---

---

4. 우리 사회에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불가피하게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왜 일어나는지,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

---

5.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리키’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힘과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